

보성군산림조합 임금 부당지급 고발당해

허위로 장부 조작해 공사비 등 수차례 임금 감사보고서 환수조치 요구에도 '묵묵부답'

보성군산림조합이 산림조합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이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조합 감사와 임원들이기에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보성군산림조합 감사인 A씨는 조합 감사 2인, 이사 2인을 포함한 총 5인의 이름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현 보성군산림조합장을 고발했다.

A씨는 "산림조합은 2017년 11월 산림경영 임도사업을 하며 조합 관련 사업을 통해 알고 지내던 굴삭기 업자 B씨에게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장비대여료 72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감사과정에서 임금표를 보고 의심이 생

긴 A씨가 당시 현장에서 일을 한 정 모씨에게 B씨가 일을 했는지 물어봤다고 한다. 정씨는 B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고, 녹취된 B씨와의 통화 내역은 경찰에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다.

A씨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공사비를 임금한 경우가 몇 건에 이르며, 임금한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이라고 횡령 혐의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측은 "서류상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담당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며 "만약 잘못된



보성군산림조합은 "산림조합 정관에 따라 감사가 감사록을 작성해야 함에도 본인들이 작성하지 않고 집행부에게 맡긴 것 자체가 감사들의 직무유기"라며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당시 본인이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했고 대의원들도 승인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발인 A씨는 "이번 건과 관련해 몇몇 당사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인 피고발인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의 계좌만 들춰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시간을 지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환수조치를 요구했지만 요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감사 2인이 모두 날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총회에 제출한 것은 산림조합법 제5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보성군산림조합은 "산림조합 정관에 따라 감사가 감사록을 작성해야 함에도 본인들이 작성하지 않고 집행부에게 맡긴 것 자체가 감사들의 직무유기"라며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당시 본인이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했고 대의원들도 승인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발인 A씨는 "이번 건과 관련해 몇몇 당사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인 피고발인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의 계좌만 들춰보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시간을 지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최근 순천시 문화공간 영동1번지에서 열린 '기후변화시대, 도시의 대응' 이란 주제 강연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사진 왼쪽부터 장성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장, 김현우 순천대 교수, 이복남 순천시의원, 김효승 순천환경원 상임의장, 안병욱 위원장.

"환경문제, 시민 역할 중요하다"

안병욱 기후환경회 운영위원장 순천시 강연

'기후재난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안병욱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최근 순천시 문화공간 영동1번지에서 열린 '기후변화시대, 도시의 대응' 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강연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했다. 그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오염에 의해 하루에 대기로 유입되는 에너지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40만 개의 폭발력과 맞먹는다"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또는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에서부터 바람이 잘 불고 충분한 녹지면적을 갖추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풍속 2m/sec 이하에서는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가 악화된다"고 말했다. 시민들에게는 카셰어링, 자전거 이용, 종이봉투사용 등을 제안했다.

특히 "연안의 블루카본을 보호해야 하는데 순천만 습지는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기에 잘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루카본은 맹그로브나 염습지, 갯벌과 같은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일컬으며 육상생태계보다 많은 양을 더 빠르게 흡수하므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돕는 것이 지자체 차원체가 해야 할 최선의 정책"이라고 매 이어 도시의 대응방안으로 "도시계획 단

고흥 드림스타트 대통령 기관표창

업무전담팀·사례관리 운영 돋보여

고흥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9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4일 광주 현대호텔에서 전국 지자체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9년도 드림스타트 사업보고 대회에서 고흥군은 경기도 수원시와 함께 영의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평가로 농산어촌과 대도시 기초단체 98개

기관의 사례관리와 서비스 운영 등 6개 분야 30개 지표를 현장점검과 행복e음 자료 사업운영 평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고흥군의 대통령 기관표창은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드림스타트 사례관리팀 운영과 기관장 관심도,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사례관리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82개 농산어촌 기초단체 중 최우수의 영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동부취재본부=진종연 기자

순천 통합 도시브랜드 슬로건 21일까지 공모

순천시가 이달 21일까지 순천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통합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한다. 순천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올해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 시민 의견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슬로건은 그간 시민 참여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뽑은 '생태, 살고 싶은, 여유'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순천의 이미지와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으로 만들면 된다. 개인당 2개의 슬로건까지 출품이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밴드, 페이스북, 팟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이번 슬로건 공모는 생태와 정원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순천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한 통합 브랜드를 개발을 위한 것으로 대한

여수 문화재 야행 성료

관광객 4만5천명 방문

2019 여수 문화재 야행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남관과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펼쳐진 '여수 문화재 야행'에 4만5,000명이 방문했다.

여수시는 이순신과 관련된 전시·공연·투어 등 8개 분야 25개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라좌수영, 8년의 기록'이라는 주제 아래 전라좌수영과 난중일기 콘텐츠를 활용한 진남관 스페셜 투어, 스탬프 투어, 호좌수영지 만들기 등이 인기였다.

2019 여수 문화재 야행은 오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2019 여수 문화재 야행이 지난 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여수시 제공

정현복 광양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기재부 등 방문 현안사업 12건 필요성 설명

정현복 광양시장이 내년도 국비지원 건의를 위해 4일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중앙부처 방문은 내년도 국비사업이 정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돼 심의하는 단계로 기획재정부 출항공무원과 관계자를 직접 만나 광양시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건의한 국가직접 시행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광양항 내부

순환도로 개설 1,900억원 ▲국도교통부가 추진하는 남해고속도로 국가도로망 직선화 사업 1,095억원 ▲순천~완주 고속도로 건설 430억원 ▲세풍산단 세습IC 입체화 사업 180억원 ▲이순신 대교 국도 승격 등 총 6건 3,825억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지역 현안 사업은 ▲섬진강 문화예술센터 조성 사업 142억원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 사업 180억원 ▲광양 국가산단 완충저

류시설 설치사업 390억원 ▲세풍산단(광양역간) 진입도로 개설 380억원 ▲광양 만권 산업융합 지식산업 센터 건립 400억원 ▲광양 중마수영장 건립 195억원, 6건 1,687억 원 등 총 12건에 5,512억 원의 건의 설명했다.

광양시 김상균 국도비담당은 "앞으로 정 부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미반영이 예상된 사업은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의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수시 방문해 설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순천대-동아대 업무협약 연구·학술대회 공동 추진

순천대는 최근 대학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동아대학교와 교육 및 연구 분야 교류를 통한 학문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우수 중진과 대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양 대학 교수와 연구 인력 교류를 통해 학문의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학점 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클릭! 고흥 소식



보성녹차미인쌀 10대 브랜드 쌀 선정

보성군은 최근 녹차미인쌀이 '2019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1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보성녹차미인쌀은 급격한 품종갱신보다는 안정적인 맛을 위해 12년간 호풍종 벼를 사용해 왔다. 특히 호풍벼는 재배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일반 쌀에 비해 맛이 월등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곡성 주민 건강걷기 프로그램 인기

곡성군은 건강팔팔마를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한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주민 건강걷기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마을 주변을 산책하며 신체 근력을 강화하는 등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끼리 안부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마을을 만드는 굿모닝 워킹이라는 테마로 운영됐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여수 한려동 수정행복주택 경로당 개소

여수시 한려동에 수정행복주택경로당 이 최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 개소식 행사에는 여수시 송성현 환경복지국장, 송재항 여수시의원, 대한노인회여수시지회장, 지역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여수시와 대한노인회여수시지회가 냇강고, TV, 에어컨 등 400여만원의 가전제품을 지원했다. 여수항도선사회와 동성향운, 한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후원품을 전달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